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하 여 진**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라 유의한 하위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잠재집단별 차이와 집단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결과,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하위잠재 집단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하루 중 7시간 이상을 일이나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집단으로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하루 중 일이나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며,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첫 번째 집단보다 약 2.5시간 많고,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약 1.3시간 더 많은 집단으로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하위잠재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기대교육연한, 부모의 물질적 지원, 지역사회의 통제수준에 대한 인식, 진로탐색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필요로 하는 정책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보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서 여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기대교육연한이 길고, 부모의 물질적 지원수준이 높고, 지역사회의 통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진로탐색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원수준과 지역사회 통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대수준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수준이 높고, 지역사회의 통제수준을 높게 인식한 학생들이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 보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활용, 잠재프로파일분석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7423).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yeojin04@snu.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타인에 의해 대체불가하며, 양적측정이 가능하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활용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삶의 양식과 성장경험, 그가 속한 사회의 생활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Larson, 2001). 시간에 대한 관리는 그의 삶에 대한 관리이며, 특히 청소년기 주어진 시간의 활용은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준비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김외숙, 박은정, 2012; 오만석, 2010).

청소년의 생활시간활용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시간, 사교육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수면시간 등 특정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e.g. 백병부, 황여정, 2011; 이창호, 이경상, 2013; 조수경, 이소연, 2020; 조은별, 박수원, 2016). 영역별 시간활용에 관한 연구결과는 개별 활동에 대한 생활시간의 활용이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반면, 총체적 성장경험으로서 생활시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시간 활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생활시간을 다룬 연구물들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생활시간활용양상을 하위잠재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 및 집단별 특성을 살펴본 일부 연구들을 들 수 있다(김성은, 김준엽, 2019; 박현정, 손윤희, 김전옥, 2017; 하여진, 2019).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정규학교 교육이수에 대한 시간활용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2016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 0.7%, 중학생 0.8%, 고등학생 1.7%로 매 년 6만 여 명의 학생들이 정규학교 교육이수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학생 청소년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정규교육 이수에 활용한다.¹⁾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교육이수 시간이 스스로 결정하여 관리해야 할 시간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간활용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

1) 통계청(2020)의 '2019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쓰는 시간은 평일 평균 초등학생 3시간 53분, 중학생 4시간 29분, 고등학생 5시간 17분으로 조사됨.

용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물은 아직 미미하다.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 144명을 분석한 김영희, 최보영과 이인희(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직 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등 시간을 낭비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간 활용에 대한 분석과 시간선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를 분석한 윤철경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단 이후 삶의 이행경로는 단일하지 않으며, 특히 학업중단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해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대학진학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들 내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적응력과 관련한 안태용 외(2019)의 질적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이행경로에 따른 획일적 차별 적용보다 진로적응력과 같은 공통적 개념 및 현상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하나의 특성으로 동질화 할 수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고 느끼는 경험은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양상에 따라 유의한 하위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잠재집단별 특성차이를 살펴보고,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내에서의 다양성과 시간활용 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간활용 양상에 따른 하위잠재집단은 몇 개로 구분되는가?
- 연구문제 2.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간활용 양상에 따른 하위잠재집단별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간활용 양상에 따른 하위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배경

1. 청소년 생활시간활용

청소년 생활시간활용에 관한 연구는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생활양식 및 삶의 질을 분석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손애리, 2000). 청소년 생활시간활용에 대한 연구는 하루나 일주일 단위의 시간을 학습, 여가, 수면 등 다양한 영역에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와 학습시간 및 수면시간, 혹은 여가시간 등 특정 영역의 시간활용 양상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연구물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시간활용양상을 다룬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문선(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4 패널 1-5차년도(초4중2)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교육시간, 독서시간, 수면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은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게임시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간과 수면시간의 감소폭이 큰 청소년은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주의집중부족, 신체화가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시간이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은 공격성과 주의집중부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와 노는 시간의 감소폭이 큰 청소년은 공격성이 더 감소하였다. 김성은, 김준엽(2019)의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들의 시간활용에 따른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 이용시간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길고 학업관련 시간이 적은 유희집단, 학업과 여가를 고르게 사용하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충분한 균형집단, 학업과 여가활용이 모두 적은 무기력집단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학업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하여진(2019)의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4 패널 4-6차년도(중1-중3)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생활시간 활용에 따라 사교육집단, 자기주도학습집단과 여가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학년의 변화에 따른 집단이행에는 동일한 형태의 시간활용집단으로의 이동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유형의 집단으로 이행한 사례 중에서는 자기주도학습집단으

로 이행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기주도학습집단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성취가치, 통제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영역의 시간활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연구물로는 수면시간(이정진 외, 2013; 조수경, 이소연, 2020), 학습시간(백병부, 황여정, 2011; 허은정, 이재덕, 2014), 여가시간(김호순, 2005; 심혜선, 전종설, 2018; 하여진, 2017) 등에 관한 연구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2-2016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 조수경과 이소연(202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상, 신체증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진(201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독서에 할애하는 집단, 게임위주로 쓰는 집단, 친구와의 놀이시간이 긴 집단과 전반적인 여가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이 높은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병부와 황여정(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3-5차년도(고1-고3)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방학 중과 학기 중, 사교육 외 학습시간과 사교육시간으로 나누어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방학 중 사교육 외 학습시간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지만, 이외 학습시간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생활시간활용 영향요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과 학교급, 교육기대수준에 따라 생활시간사용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시간 등 특정 생활시간 활용에 초점을 둔 연구물들에서는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 등 다른 시간사용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보고되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학습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사교육시간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길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박민자, 손문금, 2007; 백병부, 황여정, 2011; 하여진, 2019). 또한, 학년의 증가에 따라 학습시간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교육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시간은 증가하였다(박정윤, 전유진, 2016; 백병부, 황여정, 2011).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중학교 1, 2학년학생들은 학습시간과 전자매체 사용시간이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습시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수경, 이소연, 2020).

다음으로, 가정요인으로는 학생이 속한 가구의 SES수준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여러 연구물들에서 검증되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백병부와 황여정(2011)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학습시간과 학교학습 시간은 부모학력의 영향을 받으며, 사교육에 투입한 시간은 가구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생활시간사용을 분석한 박정윤과 전유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에는 부모의 과잉간섭, 감독, 비일관성이, 자유시간 활용에는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문선(2017)의 연구에 의하면,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가 아닐수록 사교육시간이 덜 줄어들며,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시간의 감소폭이 적었으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맞벌이 가정일수록 게임시간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들의 시간 활용에 따른 하위잠재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김성은과 김준엽(2019)의 연구에서는 아침식사빈도, 가구 월 소득,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학력,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사회별로 서로 다른 생활시간 활용을 살펴본 연구물들도 일부 존재한다. 김광수(2011)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윤명숙, 조혜정과 이희정(2009)의 연구에서도 지역 간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경험, 가치관과 의식변화,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5개 시도 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추적조사 한 자료이다. 2012년 7월 이후 정규 중학교, 일반/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제공한 개인 리스트를 활용한 패널 구축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부족한 패널은 직업훈련기관,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학원, 상담복지센터, 웹 홍보 및 스노우볼링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또한, 특정 기관 응답자의 과다 표집을 방지하고, 개인리스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013년에 리스트를 추가로 수합하였으며, 전문 조사원에 의한 1:1 대면면접 조사방식을 원칙으로 수집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318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분석하였다.

2. 연구변수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따른 하위잠재집단 분류와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하여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생활시간에는 잠자는 시간,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과 기타 여가시간의 하루 평균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집단 간 차이검증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검증을 위해 개인, 가정, 지역사회 수준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개인수준에서의 성별, 교육기대수준(교육연한점수

로 변환)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진로관련변수(진로탐색, 진로성숙)들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가정수준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원(정서적, 경제적)과 부모의 방임 및 학대 관련 변수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유대 및 통제수준, 지역사회의 무질서 및 유익한 환경으로서의 인식관련 변수들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표 1
주요 연구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생활 시간	수면시간	잠자는 시간
	대안학교, 학원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 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
	개인공부시간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TV, SNS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
	운동, 취미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
	친구교제시간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
	기타 여가시간	기타 여가시간
	성별	남학생(0) 여학생(1)
개인	교육기대수준	중졸(9) 고졸(12) 초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
	진로탐색	진로탐색에 관한 5 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진로성숙	진로성숙에 관한 13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역코딩)
가정	가정경제수준	매우 못 산다(1)~매우 잘 산다(7) (7점 리커트척도)
	부모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5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부모 경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3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부모방임	부모방임에 관한 4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부모학대	부모학대에 관한 4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나를 때리신다.

변수명	변수설명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유대에 관한 2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지역사회 통제	지역사회 통제에 관한 2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사회	물리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에 관한 2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사회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에 관한 2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지역사회유익환경	지역사회 유익환경에 관한 2문항의 평균 (4점 리커트척도) 문항예시: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약 7시간 50분이며, 대안학교 및 학원과 개인공부시간은 약 3시간, 아르바이트 및 일에 사용하는 시간도 약 3시간, 여가시간(TV, SNS, 운동, 취미, 친구교제 및 기타여가시간)은 약 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기술통계 (N=318)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생활 시간	수면시간	7.79	1.61	4.00	14.00
	대안학교, 학원	1.78	3.03	0.00	15.00
	아르바이트, 일	2.92	3.70	0.00	12.00
	개인공부시간	1.26	2.04	0.00	15.00
	TV, SNS	4.34	3.21	0.00	18.00
	운동, 취미	1.19	1.84	0.00	14.57
	친구교제시간	2.54	2.46	0.00	13.00
	기타 여가시간	0.99	2.10	0.00	13.43
개인	성별	0.47	0.50	0.00	1.00
	교육기대수준	14.34	2.27	9.00	18.00
	진로탐색	2.32	0.54	1.00	4.00
	진로성숙	2.76	0.53	1.38	4.00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정	가정경제수준	3.67	1.13	1.00	6.00
	부모 정서적 지원	2.96	0.59	1.00	4.00
	부모 경제적 지원	2.67	0.82	1.00	4.00
	부모방임	1.95	0.44	1.00	3.20
	부모학대	1.38	0.54	1.00	3.75
지역 사회	지역사회 유대	1.95	0.74	1.00	4.00
	지역사회 통제	2.00	0.74	1.00	4.00
	물리적 무질서	2.16	0.74	1.00	4.00
	사회적 무질서	2.14	0.76	1.00	4.00
	지역사회 유익환경	2.57	0.72	1.00	4.00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 양상에 따른 하위잠재집단을 구분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확률적 군집분석방법인 혼합모형(Mixture Modeling)의 일종으로, 집단분류를 위한 정보지수, 분류의 질, 통계검증 결과와 같은 하위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1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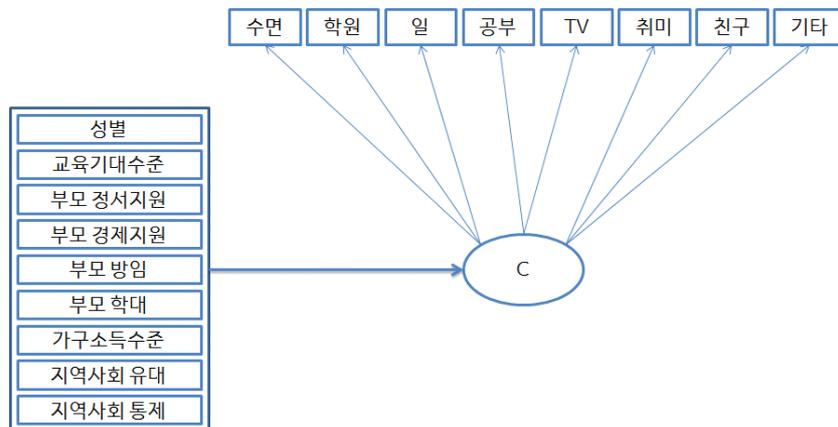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사용에 따른 하위집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양상에 따라 하위집단 수를 증가시켜가며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적합도지수(AIC, BIC, ABIC)는 군집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지수 또한 증가하였다. 통계검증결과는 집단의 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증가하였을 때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두 개에서 세 개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일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비율은 집단이 3개로 증가하였을 때 1.6%(N=5)만이 속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반적인 적합도지수와 유의미한 해석을 고려하여 하위집단 수는 2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2	3
정보 적합도	AIC	10887.501	10750.931
	BIC	11086.890	10984.178
	ABIC	10918.785	10787.527
분류의질	Entropy	0.969	0.979
통계검증*	VLMR	0.000	0.359
	LMR	0.000	0.363
	BLRT	0.000	0.000
집단비율	1	0.368	0.217
	2	0.632	0.767
	3		0.016
	4		
	5		

* 통계검증결과는 p 값을 제시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하위잠재집단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집단(직업형)은 하루 중 7시간 이상을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며, 개인공부시간, 여가시간 등이 두 번째 집단보다 적은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학업형)은 하루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첫 번째 집단보다 2.5시간 이상 많고,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첫 번째 집단보다 1시간이상 많은 집단이다(표 4, 그림2 참조). 첫 번째 집단(직업형)은 전체의 36.8%(N=117)을 차지하며, 두 번째 집단(학업형)은 전체의 63.2%(N=201)을 차지한다.

표 4

잠재집단별 특성

생활시간활용 ²⁾	G1 (직업형)	G2 (학업형)
잠자는 시간	7.60	7.90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0.20	2.7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	7.40	0.32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공부하는 시간	0.45	1.73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	3.34	4.92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	0.69	1.47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	2.34	2.66
기타 여가시간	0.48	1.29

2) 두 집단 간 평균차이검증결과, 잠자는 시간과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사용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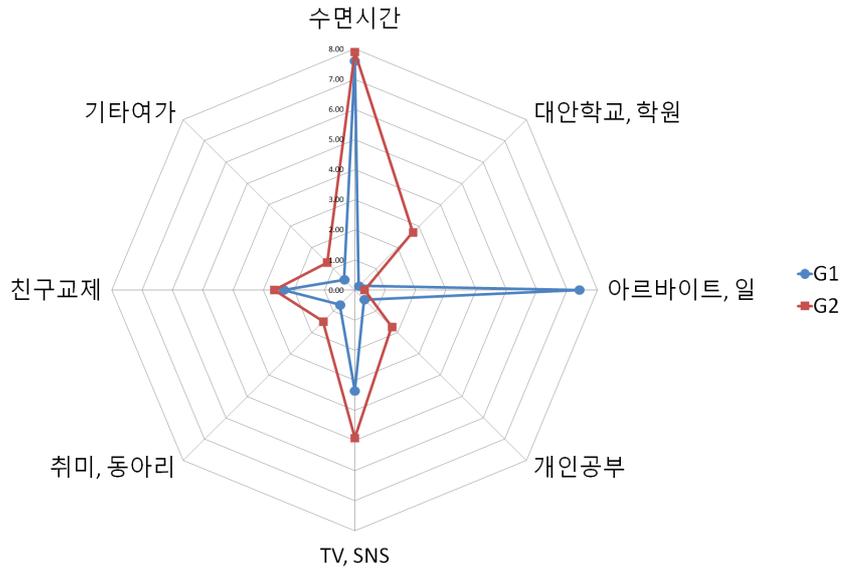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사용에 따른 집단 구분

2. 학교 밖 청소년 하위집단별 특성과 집단 구분 영향요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양상에 따른 잠재집단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이 39%, 남성이 61%로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이 52%, 남성이 48%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기대교육연한은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물질적 지원으로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님의 물질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측면에서는 지역사회 통제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지역사회가 더 통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
잠재집단별 인구배경변수의 차이

	직업형	학업형	t/χ ²	
여성	0.39	0.52	4.952 *	
기대교육연한	13.69	14.71	-3.95 ***	
부모양육태도	애정적	2.91	2.98	-0.98
	물질적	2.30	2.88	-6.38 ***
	방임	1.93	1.96	-0.56
	학대	1.38	1.37	0.20
가정경제수준	3.58	3.73	-1.11	
지역인식	유대	1.95	1.94	0.12
	통제	1.88	2.07	-2.28 *
	물리적 무질서	2.17	2.16	0.12
	사회적 무질서	2.24	2.09	1.71
	유익환경	2.48	2.63	-1.73

학업중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직업형 22.2%, 학업형 21.9%).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공부하기 싫어서(19.7%),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12.0%)가 그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10.9%), 검정고시를 하려고(10.4%)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잠재집단별 학업중단의 원인차이 (단위: %)

	직업형	학업형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2.2	21.9
공부하기 싫어서	19.7	8.0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12.0	5.5
검정고시를 하려고	9.4	10.4

	직업형	학업형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6.0	10.9
선생님이 싫어서	6.0	4.0
건강상의 이유로	4.3	9.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4.3	3.5
친구들이 싫어서	2.6	7.5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 등의 목적으로	2.6	2.0
학교부적응으로	1.7	3.5
거리, 내신 성적, 종교, 학교 분위기 등의 이유	1.7	2.5
가정불화 때문에	1.7	2.0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1.7	1.5
학교가기가 귀찮아서, 잠을 자느라고, 출석이 안 좋아서	1.7	1.5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0.9	2.5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0.9	1.5
가출, 학교폭력, 임신, 여자 친구 등 비행 문제로	0.9	0.5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0.0	2.0

다음으로 진로관련 변수의 경우, 진로성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진로에 대한 탐색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진로에 대한 탐색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7

잠재집단별 진로관련 변수의 차이

	직업형	학업형	t/ χ^2
진로탐색	2.19	2.39	-3.142 **
진로성숙	2.78	2.75	0.546

유형별 가장 필요했던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잠재집단별 필요로 하는 정책 (단위: %)

	직업형	학업형
경제적 지원	26.5	21.9
진로상담	14.5	11.9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13.7	15.9
취업지원	12.8	10.0
심리상담	9.4	14.4
없음	9.4	10.4
삶을 이끌어 줄 멘토나 또래 등 인간관계	4.3	2.0
학업지원	3.4	5.5
건강지원	3.4	4.0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2.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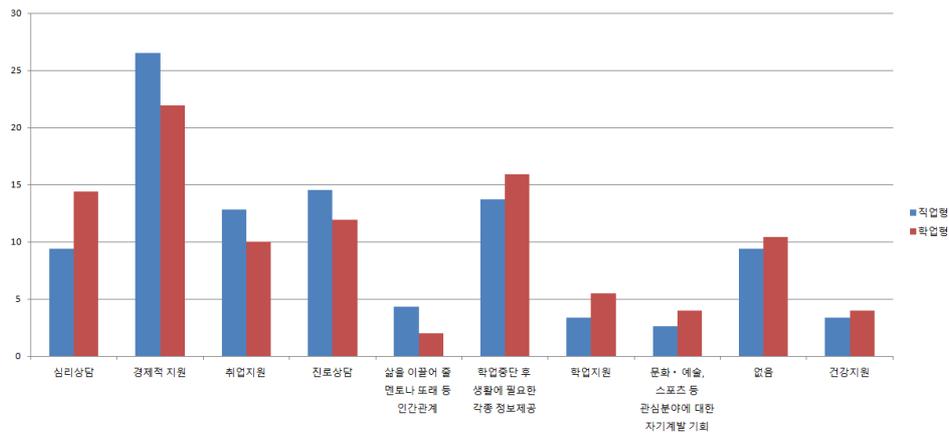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사용에 따른 정책지원 필요항목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이 진로상담, 학업중단 후의 생활정보, 취업지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학업중단 후 생활

정보, 심리상담, 진로상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심리상담으로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작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5%p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직업형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4.6%p)과 취업지원(2.8%p)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양상에 따른 하위집단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대수준이 높을 때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 분류될 승산이 높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낮은 경우 직업형 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높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통제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학업형 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높아졌다.

표 9

잠재집단별 예측변인의 효과

	Coef.	S.E.
성별(여=1)	0.441	0.270
교육기대수준	0.156 *	0.064
부모 정서적 지원	-0.352	0.306
부모 경제적 지원	1.106 ***	0.209
부모 방임	0.567	0.312
부모 학대	0.077	0.264
가구 소득수준	-0.118	0.122
지역사회 유대	-0.405	0.222
지역사회 통제	0.454 *	0.218

*참조집단: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

V.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 양상에 따른 하위잠재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조사 분석결과, 평균 수면시간은 약 7시간 50분, 대안학교 및 학원과 개인공부시간은 약 3시간, 아르바이트 및 일에 사용하는 시간 약 3시간, 여가시간(TV, SNS, 운동, 취미, 친구교제 및 기타여가시간)은 약 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청(2020)의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생활시간³⁾과 비교하였을 때 수면시간과 학습시간은 낮고, 아르바이트 및 일과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하루 중 7시간 이상을 일에 할애하는 집단으로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하루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첫 번째 집단보다 2.5시간가량 많고,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약 1.3시간 더 많은 집단으로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집단의 배경변수와 심리정서변인, 진로관련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기대교육연한, 부모의 물질적 지원, 지역사회통제수준과 진로탐색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필요로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이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보다 여학생 비율이 높았고, 기대교육수준과 진로탐색수준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물질적 지원수준과

3) 통계청(2020)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급별 평균 생활시간 활용양상은 다음과 같다.

수면 9.42(초) 8.75(중) 8.12(고) 8.37(대) / 학습 4.77(초) 5.95(중) 6.77(고) 3.49(대)
일 0(초) 0(중) 0.13(고) 1.5(대) / 여가 5.17(초) 4.75(중) 4.32(고) 4.77(대)

지역사회의 통제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두 집단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았고,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았다. 집단 간 필요로 하는 정책의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심리상담으로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과 취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넷째,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원수준과 지역사회 통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기대수준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수준이 높고 지역사회 통제 수준이 높을 때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 소속될 승산이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초기 연구물들은 학업중단을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학업중단의 실태와 원인과약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로의 복귀를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김영희, 허철수, 2012). 그러나 근래에는 학업중단을 고교다양화 등 공교육의 혼란과 사교육 시장의 확장이라는 맥락 하에서 학교 밖 교육, 비제도권 교육에 대한 선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두되기도 하였다(박종석, 2018).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고찰이 시도되고 있다(안태용 외, 2019; 윤철경 외, 2016).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내의 다양성을 찾는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학교 내의 정책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을 시간활용 양상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언사항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특히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7.4시간으로 7시간 이상 높다. 반면, 직업훈련기간 등에서 배우거나 자격증 등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정도에 불과하며, 진로탐색수준도 유의하게 낮았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질이나 특기를 살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

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물질적인 지원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지원과 취업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직후, 정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하였다(교육부, 2015). 현재는 꿈드림이라는 용어로 2021년 현재 전국 220개소에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의 원활한 연계망 구축의 어려움과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박승근, 김수정, 2017; 여성가족부, 2016). 이 연구에 참여한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드림센터 이용관련 변수들을 추가 분석해 보았을 때, 66.1%가 꿈드림센터에서 대해서 들어보지 못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꿈드림센터에 대해서 안내한 후, 참여의사를 물었을 때 절반은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22.5%)과 취업지원(20%)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절반은 주된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56.1%), 방문하기 귀찮아서(19.5%)라고 나타난 바, 참여유인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선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면, 학업, 일, 여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항목은 여가이다. 하루 평균 9.06시간(직업형 6.85시간, 학업형 10.34시간)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직업형 30.4%, 학업형 45%). 이 중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전체 여가시간의 47.9%(직업형 48.8%, 학업형 47.6%)인 4.34시간(직업형 3.34시간, 학업형 4.92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여가시간은 청소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진로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조한범, 이경일, 김미향, 1999; 하여진, 2019; Sharf, 1992),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를 통한 소속감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명숙, 2004; Kelly & Freysinger, 2000). 그러나 모든 여가활동이 긍정적인 것을 아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감각적이고 개

인중심적인 여가활동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이명숙, 2004). 컴퓨터 게임에 대한 과몰입은 폭력성과 충동성 증가와 학업부진, 일탈행동 증가에 기여한다(김은정, 2005). 또한, 휴대폰 및 SNS의 과도한 사용은 충동성, 공격성, 적대감과 분노, 스트레스, 우울, 강박과 신체적 질환을 가져오며 일상생활과 적응에 문제를 야기한다(구혜자, 이외선, 홍민주, 2016; 신연섭, 이봉건, 2016).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 진로지도 및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 이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간활용, 특히 긴 여가시간의 활용양상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바, 여가시간 선용을 돕기 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하루생활에 대한 설문시점의 기억을 바탕으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일지(time diary)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다면 과거회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협동연구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기관설문조사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구혜자, 이외선, 홍민주 (2016). 대학생의 SNS중독 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4), 180-187.
- 김광수 (2011). 대도시-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연구**, 12(1), 121-156.
- 김성은, 김준엽 (2019).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X: 데이터분석보고서-청소년 생활 시간 유형**.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영희, 허철수 (2012).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 김의숙, 박은정 (20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 **가정과 삶의질연구**, 30(4), 119-132.
- 김은정 (2005). 폭력적 컴퓨터 게임과 공격적 비행, 인터넷 비행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의 관계: 청소년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359-377.
- 김호순 (2005). 주 5 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 선호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4), 59-82
- 박민자,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 93-120.
- 박승곤, 김수정 (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233-257. doi:10.21509/KJYS.2017.04.24.4.233
- 박정윤, 전유진 (2016). 청소년 자녀의 생활시간 사용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35-47.
- 박종석 (2018). 고교 중퇴자들의 학교 밖 학력주의 경험과 그 추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28(2), 87-125.
- 박현정, 손윤희, 김전욱 (2017).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 유형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 197-224. doi:10.14816/sky.2017.28.2.197

- 백병부, 황여정 (2011). 일반계 고등학생의 유형별 학습시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2(1), 57-85.
- 손애리 (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신연섭, 이봉건 (2016).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공격성의 관계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45, 61-84. doi:10.17854/ffyc.2016.01.45.60
- 심혜선, 전종설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이즌중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75-300.
- 안태용, 임혜경, 강선모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 재구성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18(5), 615-637.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오만석 (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 299-330.
- 윤명숙, 조혜정, 이희정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4), 347-370.
-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박예슬, 이지혜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명숙 (2001). 청소년의 게임물 접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3), 245-268.
- 이정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 수면시간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1(3), 100-110.
-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조수경, 이소연 (2020). 청소년의 수면시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31(1), 5-32. doi:10.14816/sky.2020.31.1.5
- 조은별, 박수원 (2016). 청소년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 학회지**, 13, 115-139.
- 조한범, 이경일, 김미향 (1999). 여가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와 진로 성숙의 관계: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8(4), 950-959.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하문선 (2017).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가정환경,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25-59. doi:10.21509/KJYS.2017.03.24.3.25

- 하여진 (2017). 고등학생의 여가 활용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예측요인과 진로정체감의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8(1), 5-36. doi:10.14816/sky.20177.28.1.5
- 하여진 (2019). 중학생의 방과후 생활시간 활용양상의 잠재전이유형과 학습자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1), 125-153. doi:10.14816/sky.2019.30.1.12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1차-5차)**.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허은정, 이재덕 (2014). 고등학생의 학습유형별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도 및 학업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2(4), 121-139.
- Kelly, J. R., & Freysinger, V. J. (2000). *21st century leisure: Current issues*. Allyn & Bacon.
- Larson, R. W. (2001). How US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What it does (and doesn't) tell us about their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60-164. doi:10.1111/1467-8721.00139
- Sharf, R. S. (201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Nelson Education.

ABSTRACT

Classifying latent classes in out-of-school youths' time usage patterns

Ha, Yeo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in out-of-school youths' time usage patterns and to test the effects of factors which determining the latent group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applied to data taken from the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 Youth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latent subgroups according to the time usage patterns of out-of-school youths. The first group spent a lot of time in work related activity; they worked seven hours more than the other group. The second group spent more time in study related activity than the first group; they studied in educational institutes about 2.71 hours and studied alone about 1.73 hours. Second, these two latent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gender, expected education level, parents' monetary support level, level of local control and degree of career exploration. Their needs for political support were also differ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out-of-school youths, time usage patterns, latent profile analysis

투고일: 2021. 3. 8, 심사일: 2021. 3. 19, 심사완료일: 2021. 4. 16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Ph. D.